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열어갑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19호 2004년 5월 14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제10회 싱글PPM 품질혁신 전진대회 개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이 김갑순 우림 대표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제10회 싱글PPM 품질혁신 전진대회"가 5월 7일 코엑스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유창무 중소기업청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싱글PPM 품질인증 및 추진 업체 경영자와 근로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세원ECS, 동서산업(주) 등 17개 중소기업이 싱글PPM달성 우수중소기업에게 수여하는 '싱글PPM賞'을, 한국전력공사와 대우정밀(주), (주)평화발레오 등 3개 기업이 협력업체의 싱글PPM달성을 적극 지원한 우수기업에게 수여하는 '싱글PPM우수모기업賞'을 수상하였으며, (주)우림 김갑순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주)비엠씨 최두호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주)다함이텍 신기득 전무가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113명의 싱글PPM 유공자가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치사에서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긴밀한 협력하여 품질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다함께 성장해 나갈"을 강조하였고,

'싱글PPM賞'을 수상한 (주)세원ECS 임병윤 대표는 사례발표를 통해 "최고경영자로부터 생산현장의 근로자까지 전사원이 노력한 결과, 불량률이 98%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도 3배 이상 신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생산제품 100만개 중 불량품을 한자리 숫자(10개 미만)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불량률 제로(0)의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혁신 운동을 전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가 주관하고 있다.

▶ **기술지원국**
시험평가과
(042-481-4458)

홈쇼핑을 통한 우수중기제품 판매 지원

- (주)CJ홈쇼핑 유통채널 활용 -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왼쪽)이 김진수 CJ홈쇼핑 사장과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을 발굴하여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주)CJ홈쇼핑 유통망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5월 11일 CJ홈쇼핑 본사에서 (주)CJ홈쇼핑(대표 김진수)과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대한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중소기업 판로지원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청이 발굴·추천한 우수 중소 기업 상품은 (주)CJ 홈쇼핑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품설명회'를 거쳐 홈쇼핑방송 판로대상 품목으로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홈쇼핑 방송과 쇼핑몰, 카다로그 등을 통한 판매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며, 특히 (주)CJ홈쇼핑의 판매수수료를 일반상품 보다 15~20% 할인해 준다.

또한, 개발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상품에 대해 중기청의 기술지도와 함께 (주)CJ홈쇼핑의 사전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신상품의 판로확보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진하는 홈쇼핑을 통한 직접적인 판로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홈쇼핑사간 판로협력을 통한 Win-Win전략에 기초한 것으로서 새로운 협력사업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업성장지원국
판로지원과
(042-481-4466)

중소기업 換리스크관리지원 시스템 가동

- 약 1,000개사, 50억불 규모의 선물환 등 거래 지원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보다 용이하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煥리스크관리시스템'을 5월 13일부터 가동한다.

이 환위험관리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소규모 외환거래를 묶어 선물환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모두 1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50억달러 규모의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환위험 회피를 원하는 경우에도 선물환 거래규모가 통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1백달러 이상에 미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거나 거래금액의 8% 수준인 이행보증금 및 달러당 2원 이상의 거래수수료 등 높은 비용부담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선물환 거래가 어려웠으나 이 사업의 시행으로 비교적 낮은 환위험 헤지비용만으로도 효율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선물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정부재정(금년 6억원)과 우리은행이 분담하여 현행 이행보증금의 약 20%만을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되며, 중소기업의 외환거래를 묶어 거래함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의 거래수수료도 50%이상 절감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 외환거래시스템인 HTS(Home Trading System)을 이용함으로써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현물과 선물을 연계하여 외화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거래시에는 시장환율에 비해 불리한 은행 고시환율을 기준환율로 적용 받았으나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장환율을 기준환율로 적용받게된다.

지원대상은 수출입이나 해외투자 등으로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이며, 참여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또는 우리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042-481-4377)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20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국 24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그간의 사업성과와 올해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국비 200억원의 지역별 지원금액을 확정했다.

지역별 지원금액은 경기 37.4억원, 대전·충남 30.4억원, 전북 27.2억원 대구·경북 22.8억원, 부산·울산 22.6억원, 경남 20.2억원 등이며, 이번 지원금액은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두었고, 발전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정책전략지구에 대해 집중 지원하도록 했다.

200억원의 지방비를 포함한 총 400억원의 사업비는 촉진지구 내 벤처집적시설 건립,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용장비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벤처기업의 집적화 촉진과 산·학·연·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벤처생태계 조성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이 개발한 생산기술을 지역 기업으로의 이전을 유도하고 기술자 중심의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24개 지구에 국비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촉진지구 입주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7,364개사로 입주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01년 28억원에서 2003년 59억원으로, 평균 고용수도 2001년 20명에서 2003년 28명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성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앞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역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벤처국**
벤처진흥과
(042-481-4423)

정보화혁신클러스터 5개 업종 선정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시스템화를 통한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 및 조합 중심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5개의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조합은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한국스포츠용품공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한국석회석가공공업협동조합 등이다.

선정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시하는 정보화촉진과제에 대한 총 사업비의 80%(평균 4.2억원)를 지원하며, 특히 중기청이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지원사업에 참여시 우대하는 등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의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들 조합은 앞으로 e-Marketplace, 업종별 특화 포탈사이트, 협업적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추진전략, 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1,200여개 조합회원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경영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지원국**
기업정보화과
(042-481-4406)

중소기업공정혁신사업에 41개사, 34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신공정 도입 및 공정개선을 위한 "공정혁신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으로 41개사를 선정하고 총 34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158개 신청기업 중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공정혁신 효과 및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여 선정되었고, 규모별로는 50인 이하 소기업이 80%이상인 33개사였으며,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15개사, 화학섬유·의료 9개사, 전기전자 8개사, 재료요업 4개사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추진능력 및 생산현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원하며, 먼저 1단계로는 생산공정기술 전문가의 공정 진단 및 설계 지원으로,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 50%이내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2단계로는 1단계의 진단을 기초로 공정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75%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이다.

이번에 선정된 41개사의 공정혁신이 완료되면 평균 90% 이상의 생산성 향상과 연간 47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지원된 22개사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191%의 생산성 향상, 276백만원의 원가절감, 365%의 품질향상 및 5명의 인원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042-481-4435)

벤처기업 전문 취업사이트 오픈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1사 1인 채용운동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전문 취업사이트(http://job.venturenet.or.kr)를 구축하고, 5월 7일부터 온라인 채용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사이트는 구직자와 구인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이 웹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면 구인구직 정보를 상세히 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구직자와 구인벤처기업의 각종 통계 분석자료도 볼 수 있다.

이번 사이트의 오픈으로 구직자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도전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벤처기업도 유능한 인재를 신속히 발굴하여 채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인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386)